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52, 3048 <http://www.daegujubo.or.kr>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오늘의 전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35-40 참조)

설날인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 하십니다. 충실하게 항상 깨어 준비하는 종에게는 주님께서 커다란 축복과 행복을 주십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도 새롭게 깨어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1독서 민수 6,22-27 **제2독서** 야고 4,13-15 **복음** 루카 12,35-40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화답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배성수 라우렌시오 신부 | 예수성심시녀회 포항모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느 때보다 사람들은 많은 축복의 인사와 표정과 손길을 나눕니다. 이처럼 서로 나누는 축복들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 주시며,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40)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삶의 행복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깨어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세는 어느 한 시인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올해는 우리가 신앙의 해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복음화가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처럼 시인과 함께 나 자신의 새로움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다가오는 수요일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 새해의 희망과 함께 신앙의 해를 더욱 충실하고 보람된 삶을 위한 발걸음으로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가 /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써 / 꽃피울 새해여! (詩 - 구상) **필로**

사순절의 첫날 재의 수요일

사람아,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오는 2월 13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날 지난해의 성지가지로 만든 재를 축복하고 머리에 얹는 <재의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재는 참회와 보속을 의미합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교우는 금식을 지키고 만 14세 이상의 교우는 금육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 군인, 중노동을 하는 사람과 금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 여행자 등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과 금육은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교황성하의 2013년 사순시기 담화문(요약)



사랑에 대한 믿음이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해에 보내는 사순 시기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성찰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느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느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1요한 4,16)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이고 ‘열정적인’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이처럼 인격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사랑의 일꾼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며, 사랑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우정을 맺고, 사랑을 통하여 이 우정은 생명을 얻고 자라납니다. 믿음은 선택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고, 사랑은 그 선물이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을 만나고자 끊임없이 산에 올라 하느님에게서 사랑과 힘을 얻고 내려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위한 활동 중에, 하느님 말씀의 빵을 쪼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하느님과 맺는 관계로 이끄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 큰 사랑의 활동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은 우리를 사랑이신 분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를 내포합니다. 하느님의 다른 모든 선물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은 한분이신 같은 성령의 활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다운 헌신과 모든 사람에 대한 형제적 봉사를 우리가 본받도록 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덕의 관계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두 성사, 곧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관계와 닮아 있습니다. 세례성사(믿음의 성사)는 성체성사(사랑의 성사)보다 앞서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케 해 주는 성체성사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사랑보다 앞서지만, 사랑의 화관을 쓸 때 비로소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소중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힘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2년 10월 1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제 마음을 훔쳐 가신 신부님...”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주교대리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다. 21년간의 군종신부를 끝내고 1년간 군종교구장 직무대행으로 군종교구청에 있을 때의 일이다. 내 생일날 국방부 군종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해군 법사님께서 생일 축하 선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주고 갔다. “세상 사람들은 조세형이를 일컬어 大盜(대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훔쳐 가신 신부님은 그 보다 더 큰 도둑입니다.” 나는 그날 그 글을 보고 너무 너무 기뻐다. 다른 어느 때보다 기뻐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돈을 얻은 기쁨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기쁨도 아니다. 그 기쁨은 단지 ‘사람을 얻은 기쁨’이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사람을 얻는 기쁨’임을 알았다. 나는 그날부터 “사랑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고 확실한 정의를 내렸다. 내가 만일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잘못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나에게 ‘이웃’이 없다는 말이다. ‘이웃’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더욱이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도 죽은 신앙이며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죽은 교회이다.

나는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우주 비행을 마친 이소연 씨에게 외국 기자들이 질문하였다. “대한민국 우주인으로서 너의 콘셉트는 무엇이나?” 이소연 씨가 대답하였다.

“음, 나의 콘셉트는 옆집 여자다(Hm, My concept is woman next door).”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대답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첫 우주인이 된 사람의 대답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소박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행복한 옆집 누나’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옆집 이웃’이 되는 꿈을 꾸고 있고 ‘옆집 이웃’이 되는 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이제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루카 10,36)하고 물으셨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강력한 주문을 알아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강력한 주문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앞으로 사제로 죽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더 큰 도둑이 되고 싶다. 나도 ‘행복한 옆집 오빠나 형님’이 되는 꿈을 꾸면서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문**



대구주보에서는 이번호부터 매월 1회 신부님들의 사목단상을 연재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오페라를 부를 겁니다.”

어눌한 말투, 고르지 못한 치열, 누구도 비호감이라고 부를 만한 후줄그레한 옷차림, 짧은 팔에 배불뚝이, 쳐다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얼굴엔 극히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36살의 휴대전화 외판원의 말에 심사위원들은 미답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비웃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눈빛으로 그가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자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의 표정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다시 씻게 만드는 음색과 풍성한 성량은 등을 젖히고 조롱하듯 앉아있던 방청객들의 자세를 바꾸게 했고, 볼펜을 입에 문 심사위원의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으며, 한 여성 심사위원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감동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외판원이었던 그가 영국판 노래자랑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여 전 세계적으로 ‘폴 포츠 신드롬’을 일으킨 것은 감미로운 노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폴 포츠는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를 꿈꿨으나 어눌한 말투와 외모 때문에 항상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28세 때 이탈리아의 오페라 여름학교까지 자비를 들여갔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많은 오페라 회사는 그의 ‘비호감형’ 외모만 보고 그를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병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오토바이사고로 쇄골이 부서져 큰 성량을 요구하는 오페라 곡을 부르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단 한 번 찾아온 기회(One Chance)를 놓치지 않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의 첫 앨범 타이틀도 〈원 찬스〉입니다. **▶▶▶**

금주의 성인



성 발렌티노(2월 14일)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발렌티누스 성인께서는 군인들의 혼배를 주례하시다가 체포되셨는데 감시를 하던 옥지기의 눈먼 양녀를 고쳐주셨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전 가족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마침내 그 소문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성인께서는 참수를 당하셨다고 한다. 옥에서 처형을 기다리시던 성인께서는 당신이 고쳐주신 옥지기의 딸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끝에 “너의 발렌티노로부터”라고 서명하신 것이 후대의 발렌타인 카드의 기원이 되었다. 성인의 축일을 연인들의 축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14세기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 발렌타인 축일의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는 상업적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교례회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월 29일(화) 오후 2시 만남의 교회에서 열린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6대 종단 대표와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사 및 사진제공 : 매일신문

■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 개소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월 30일(수) 오후 3시 남구 대명동 대경빌딩 4층에서 열린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자립을 위한 공동체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 개소식에 참석하시어 축복하셨다. 이날 개소식에는 교회 및 사회 각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대구주보 영성사진 콘테스트 첫번째 수상작 시상



대구주보가 마련한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의 첫번째 수상작(2012년 12월)에 대한 시상식이 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월간 빛 편집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구 문화홍보실장 정태우(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는 최우수상에 하의강(미카엘, 산격성당) 형제님과 우수상에 정경준(블랑디나, 만촌성당) 자매님께 각각 상금과 수상작 기념 액자를 수여하셨다.

하루빨리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 **노동자 월례미사** 2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가톨릭근로자회관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6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6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 **평화를 위한 미사** 2월 16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 설연휴 관계로 경주성건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와 구미신평성당 군종후원회 월례미사는 없습니다.

성소 | 피정

젊은이 화요 Lectio Divina 모임

일시: 2.26(화) 첫모임 19: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내 찌리울

주관: 톡썰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문의: (010)8519-3431

신자 대상 한티피정의집 하루 피정

일시: 2.16(토) 10:00~16:00 미사

주제: 완덕의 길(박현찬 신부 지도)

일시: 2.18(월) 10:00~16:00 미사

주제: 예수 마음기도(권민자 수녀 지도)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105차 대구 선택주말

기간: 3.8(금)~10(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 신자(선착순 50명)

문의: 에밀리아 (010)5045-3116

<http://cafe.daum.net/daeguchoice>

수녀원 체형

기간: 2.15(금) 18:00~17(일) 14:00

장소: 진주 작은자매관상선교회

대상: 20~30대 미혼 여성

문의: (010)5805-7665

삼성산성지(서울대교구)

2박3일 믿음 대피정

기간: 2.15(금) 18:00~17(일) 15:00

강사: 박용식 신부 외

문의: (010)2389-3332

교육 | 모집

경산 어버이성경 거룩한 독서모임모집

낮반: 월~목 / 밤반: 월~화(매주 1회)

접수: 1.2~2.28, 임당역 2, 3번 출구

내용: 마르코, 요한복음(선착순)

대상: 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남,여)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815-1114

낙태된 영혼들을 위한 백일철이기도 봉헌

기간: 2.13(재의 수요일)~5.23(목)

선착순: 100명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010)8915-5496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20:30)

수성구청(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일본성지순례

일자: 3.19(화)/다른 날짜 전화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님

회비: 57만 9천 원 (4박 5일)

문의: (02)318-7202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대상: 여대생(종교 무관)

주소: 대전시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042)534-8876

이스라엘·이태리 성지순례(9.25~10.7)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http://www.terrasanta.kr>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 특판 기종: SKY 베가, LG 올티머스 (전국 최저가)

공동구매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스)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일본성지순례

나가사키/운젠/히라도

제1차 2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율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유주운전등

운전면허 취득 행정심판전문

합동 감정 사무소

대표 박 수 원(스테파노)

대구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

